

‘나부터변하자’

**나아가 우리의 건설문화를 한단계 끌어올리고 꽃 피우기 위해서는 건설인 자신이 해야 하는 업무를
방기하지 않고 잘못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지는 합리적인 건설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후배들에게 보다 나은 건설산업을 물려줄 수 있을 것이다.

어느 후배가 건설업을 4D 업종이라 폄하하면서 네 번째 D를 ‘Dreamless’로 표현했던 말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응, 쿵쿵쿵쿵’
분주히 움직이는 장비의 굉음에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기술자들의 온몸은 땀에 흠뻑 젖기도 하고 짜릿한 전율을 느끼기도 한다.

1980년대 처음 건설을 접하였을 때 우리나라는 중동 등 해외에서 달러를 벌어들여 국내에서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라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갔다. 하루 24시간도 부족하여 불철주야로 일을 하는 바람에 가족과 얼굴을 대면하는 시간도 거의 없을 정도였다. 이 시기에 이런과정을 겪지 않은 건설기술자들은 거의 전무할 것이다. 비가 와서 하루라도 공치는 날이 생기면 장비 기사와 노무자들을 호통치고 때론 달래가며 까먹은 하루를 보충하여 뼈뺏한 공기를 맞추려고 발버둥을 쳤던 시절이었다. 근데 이십여년이 흐른 지금, 세상은 그때와는 전혀 다르게 변해버린 듯하다.

국가 발전과 더불어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이 제법 이루어지면서 국토의 대동맥을 이루는 고속도로가 거의 놓여졌고 군소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역시 대부분 4차로 포장될 정도에 이르렀다.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고속철도역시 잔여 구간만을 남기고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기반시설의 수요가 정점을 지나버린 지금에선 과거와 같이 시간과의 전쟁을 치르는 현장은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회사에서 시공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짧게는 2, 3년 길게는 7년 정도 공기가 연장되는 사업이 허다하다. 4차선 국도의 경우 착공에서 준공까지 7년에서 12년 정도 소요된다는 결론이다. 이런 현상들을 들여다보면 정부 예산의 부족으로 인한 공기 연장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민원,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등으로 인해 인허가가 지연되면서 사업 초기부터 갈등을 빚고 있는 사업들이 속출하고 있다. 사업이 지연되면서 시설물을 이용하지 못하여 잃는 편익, 착공 지연



최관용
용마터널현장소장(SK건설)

으로 발생하는 업체의 간접 비용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고, 건설 기술 측면에서는 프로젝트 관리의 중요한 요소인 공정과 원가 관리 능력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태로 인하여 공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공정 계획은 예정 공정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 제출하고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시에만 사용되는 표현물로 전락해가고 있다. 물론 어느 공사 현장이나 전반적인 공정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처럼 시간에 대한 목표 의식이 명확하지 않고 대개는 내외부 요인에 의해 너무나 쉽게 변경되어 버리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열정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없애려면 사업을 계획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인허가 등을 사전에 처리하여 주어진 공기 내에 공사가 완공되도록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에서는 기본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효율성을 제대로 검토해야 하고, 사업에 따른 갈등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시공자는 주어진 시간과 여건 속에서 요구되는 품질의 시설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공정, 품질, 안전, 원가 등의 계획을 꼼꼼히 세워야 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의 건설 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리고 꽃 피우기 위해서는 건설인 자신이 해야 하는 업무를 방기하지 않고 잘못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지는 합리적인 건설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후배들에게 보다 나은 건설산업을 물려줄 수 있을 것이다.

어느 후배가 건설업을 4D 업종이라 폄하하면서 네 번째 D를 ‘Dreamless’로 표현했던 말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보다 나은 건설산업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건설인 모두가 ‘나부터 변하자’는 생각으로 계획하고 실천할 때이다. 